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목: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경: 요한복음 13장 34-38절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  
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  
라

36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7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  
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  
13:34-38)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특히 잠잠히 사랑하신다. 다시 말해  
서 오래도록 사랑하신다는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순결한  
사랑이므로 끌려 다니거나 집착하는 사랑이거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다.

- 1.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 5. 먼저 섬김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 7. 후에는 알리라. 믿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 10. 친절하나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모두 발만 씻어 주심)
- 21. 괴로워 하시도록 사랑하시는 예수님.
- 26. 친밀하시고 은밀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 38. 다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배신할 줄도 아시지만 개의치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기뻐하시지는 않으셨으나, 돌이킬 것을

아시고 사랑하심.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아시고 더는 사랑하지 않으심. (끝까지만 사랑하심. 끝났으면 더는 아니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 네가지는 사랑의 걸림돌.

미움은 부정적 반응. 뭔가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갖게 되는 감정.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불협화음이 있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처음에는, 또는 사랑이 더 클 경우에는 상관없이 지나가면서 누적이 되거나, 사랑이 식어질 경우 문제가 된다.

미움에 대한 건강한 반응이 중요하다.

미워할 때 미움 받았을 때 건강하게 반응하자.

미워할 때는 사랑으로 미움을 감싸지 아니하면 미움은 더 커지게 된다는 사실. 좋기는 만지면 더 심해진다. 밋다고 미워하면 더 미워진다. 미움은 사랑으로 다스리자. 미움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은 미워하지 않는척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미우면 싫은 내색을 해야 한다. 분명하게 표정으로 표현해야 한다. Good과 Very Good은 다르다. 그냥 Good은 나쁘지 않다는 뜻이다. 사실은 좋지 않다는 뜻인데 싫은 내색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아주 좋다는 표현은 자주, 감탄사를 동원해서 표현한다.

미움을 사랑으로 다스려서 더 섬기고, 더 친절하고, 더 안아주고, 더 인정해 주어서 그가 그 미움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미움을 받았을 때는 사랑을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공세를 해야 한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마치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는 것과 같다. 세월이 지나면 잊혀진다. 그러므로 미움을 받았다고 여겨지면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건강하다.

그러므로 밋다고 그대로 미워하는 것은 아직 훈련되지 않는 젓먹이와 같다. 젓먹이들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오직 게걸스럽게

사랑만을 받아 먹고 사랑해 주는 사람 알아주지도 않고 늘어지게 잠을 잔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배우라고 명령하셨다. 너희 '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것을 그대로 배워야 한다는 명령이다. 시간이 지나 장성할 때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젓먹이'같이 사랑 받기만 익숙하다면 예수님이 미워하는 내색을 보이실 것이다.

분명한 것은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겠지만, 끝이 지났다면 더 이상 사랑하지는 않고 떠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미움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은 끝까지는 사랑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툼은 적극적인 미움의 표현이다. 끝까지 사랑하고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으나 헤어질수도 없을 때 다투기 시작한다. 아니면 아직 장성하지 못한 사람일 경우 티격태격식으로 다툰다. 끝낸느 다툼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다. 이들은 죽기 바로 전날까지 끊임없이 다툰다.

다투면 서로 부끄러워지고 몰염치가 되어가고, 발전은 없고, 변화도 없으며, 인생을 소모하면서 지내게 된다. 시동은 걸어놓고 결코 기어를 넣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다투는 사람은 결코 돌파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장성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훈련시켜야 한다. 결코 스스로 사랑을 배우지 못한다.

시기는 부러워하고 꺼리는 것(알리지 반응). 시기는 주변 사람들에 게서 일어나는 감정이다. 내편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시기하는 감정은 좋아하면서도 미워하는 복합감정이다.

시기를 잘 다루는 사람은 그 사람을 내편으로 만든다. 내 편으로 만들면 더 이상 위험한 상대가 아니라, 나를 돕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어차피 인생이란 서로 돕고 유익을 주고 받아야 하는데, 시기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옹고집쟁이, 홀로서기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

람을 배려할줄 모르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세상은 잘난척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예는 없기 때문이다.

시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칭찬을 잘해야 한다. 정확하고 예리할 수록 칭찬은 빛이 난다. 여러번 큰소리로 칭찬하기 보다는 핵심을 짚어서 칭찬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편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칭찬을 두 섬 사이를 잇는 다리와 같다. 서로가 편리해지고 버팀목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부러워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떠나 사는 격이다. 그래서 칭찬해야 시기를 이길 수 있다.

질투는 다른사람의 것을 탐내고 빼앗으려는 마음이나 행위-특히 이성간에. (축복하지 못함)

그러므로 질투는 심각한 범죄가 된다.

미움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발전해서 질투가 된다. 우리 마음 속에 이것들이 있다면 결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아멘.

사랑은 훈련!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